대불련 동문 연말 화두, '청년 붓다 양성'

창립 50주년 회향 마당으로 12월 15~18일 전시 · 바자회

송년법회 후 사찰음식 공양 "기금모아 대불련 복원 사용"



6월 10일 전법회관서 열린 창립 50주년 간담회. 이날 대불련 동문들은 대불련 지원에 뜻을 모았다.

대불련총동문회(회장 백효흠)가 올해 창립 50주년 회향하는 차원에서 청년붓다 양성을 위한 한마당을 연다.

전시전을 비롯해 바자회 등 일반 대중들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대불련 지회 재창립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대불련총동문회는 올해 초 창립 50주년을 맞아 60주년인 2027년까지 대불련 지회 200개를 복원하고 동문회관을 건립하는 등 미래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현재 대불련의 지회는 200여곳에서 70여곳으로 축소된 상태로 대불련 총동문회는 동문을 통한 재창립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지회 재창립이나 신설 활동에 힘쓰는 재학생을 위한 '학송 장학금'을 신설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올해 처음 진행될 예정인 '청년 붓다 육성을 위한 전시 및 바자회'는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나무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에는 동문회가 확보하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대불련 사랑' 휘호와 기현 스님의 서예작품, 범주 스님의 달마도를 비롯해 그동안 대학포교 활동을 위해 기증받은 작품들이 전시 판매된다.

또 대불련 동문 작가인 손갑련 씨의 서예작품, 각자장 손권찬 씨의 서각 작품, 강손주 씨의 천연염색 작품, 김중태 씨의 소목 작품 등이 전시 판매될 예정이다. 아울러 동문들이 보유한 스님들의 유묵이나 그림 등 작품을 기증받아 전시 판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문 사업체의 상품이나 동문이 기증하는 물품을 기증받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바자회도 함께 진행된다. 각종 불구와 차와 같은 불교용품이나 불교서적 등의 전시와 판매도 계획 중이다.

이와 함께 12월 16일에는 대불련 총동문회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함께 대불련 발전 의지를 다지는 송년 모임도 열린다. 창립 50주년을 맞아 올해는 소모적인 행사에서 벗어나기 위해 먼저 오후 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송년법회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오후 6시에는 조계사 만발식당에서 사찰음식을 함께 공양하는 자리도 이어진다.

백효흠 대불련 총동문회장은 "대불련 총동문회 창립 50주년은 대불련 동문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됐다. 대불련 지회 재창립을 비롯한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말을 맞아 동문들이 다시 한번 뭉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청년 포교는 미래 불교를 위한 핵심 과제로 각 지역의 동문들이 후배들을 지원하고 신심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백 회장은 이어 "불교학생회 복원과 장학생 지원 등에 불자들의 십시일반 도움이 필요하다. 바자회와 자선행사 등을 통한 기금 모연에 많은 불자들이 동참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생명나눔, 백사마을에 생필품 나눔 '훈훈'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모여 한파 속 따뜻한 정 나눔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물품을 나르고 있다.

쌀, 이불, 라면 등을 나눠주는 자원봉사자의 손길에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노원구 백사마을엔 훈기가 가득 찼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12월 4일 노원 백사마을에서 '제4회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따뜻한 정 나누기'를 진행하고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해 쌀, 이불, 라면 등을 나눴다. 강추위의 기승에도 강난희 서울시장 부인, 김경태 노원구 의원, 가수 장미화, 개그맨 엄용수, 불암사 신도회 등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200여 명이 함께했다. 가수 수지는 이날 행사는 참여치 못했지만 생필품 구매를 위해 후원금 1,500만원을 기부했다.

기념식서 일면 스님은 "주위에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행사가 올해로 4회를 맞았다. 많은 분들이 생명나눔에 소중한 정성을 보내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행복 나누니 어르신들 행복 더해져요"

덕양행신사회복지관 '행복나눔, 행복더함' 나눔행사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강영규)은 12월 6일, 덕양구 내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서적으로 소외된 저소득 어르신 160명에게 따뜻한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또한 어르신들과 함께 다채로운 공연관람을 하며 송년행사 '행복나눔, 행복더함'을 진행했다.〈사진〉

이번 행사의 공연은 시립행복어린이집 원아들의 축하공연과 김세나 서울코리아나팀 가수의 무대, 행운권 추첨으로 이뤄졌으며 공연이 끝난 뒤 점심식사가 제공됐다. 송년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추위로 더욱 쓸쓸해지는 연말에 잊지 않고 좋은 자리를 만들어 준 복지관에 고맙다. 힘을 내어 추운 겨울을 이겨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떡국떡으로 따뜻한 겨울 나시길…"

자양종합복지관 어르신들에 식료품 전달



자양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영심)이 12월 6일 한국마사회 워커힐 문화공감센터(센터장 유승일)의 지원을 받아 준비한 식료품 꾸러미를 어르신 120여명에게 전달했다.〈사진〉

이번 지원 행사는 복지관 인근의 재래시장에서 총 500만원의 식료품을 구입함으로써, 대형마트로 인해 침체된 재래시장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다. **박진형 기자**

전국 청소년 신심 등(燈) 속에 담다

제8회 전국청소년 등작품 파라미타, 12월 5일 발표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심산, 이하 파라미타)가 진행한 제8회 전국청소년 등(燈)작품 공모전에서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 2학년 안서경 학생의 '비상(飛上) 등(燈)'이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파라미타는 12월 5일 "전국에서 300여 작품이 예선을 거쳐 120여 작품이 본선에 제출되었고 창의성과 실용성, 전통성을 심사기준으로 지난 11월 1일에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대상 1명과 금상 2명 등 개인상 20여 명과 단체상을 선정했다"며 발표했다. **노덕현 기자**

〈바로 잡습니다〉

본지 1175호 A6면 서울형MC 기사의 '창업자금 7,000만원을 대출' 에서 '7,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바로잡습니다.

포교사단 지역단 전진대회 개최

충북 · 경남 · 경북 등 각지역 원력 다지는 행사 잇따라



체육대회를 겸해 열린 경남지역단 포교 전진대회 모습.

조계종 포교사단의 지역단들이 한해를 돌아보고 포교 원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포교사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포교사단 충북지역단(단장 송수헌)은 12월 2일 청주 S프라자 컨벤션에서 포교사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진대회에는 포교원장 지홍님과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 청주불교연합회장 현진 스님, 윤기중 포교사단장을 비롯한 충북지역 포교사들이 동참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주중에는 생업에, 주말에는 포교현장에서 전법활동을 하는 포교사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며 "포교 현장은 언제나 뜨거운 여름이고, 언제나 온기를 나누어야할 겨울로 전법의 정진만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송수헌 포교사단 충북지역단장은 "전진대회는 지역의 포교사들의 활동을 점검하고 새해를 준비하기 위한 자리"라며 "충북지역단이 화합하며 모범적인 지역단으로 발돋움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포교사 전진대회에서는 임형식 포교사가 포교사단 총재상을 구점회, 민채근, 설현자, 박보경, 박병화 포교사가 법주사 주지상을, 김영길 포교사가 포교사단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와 함께 경남지역단(단장 김위영)은 포교사 전진대회를 체육대회 형식으로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12월 2일 창원 유목 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남지역단 포교사 전진대회에서는 포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두드러졌다. 전진대회에서는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됐다.

이에 앞서 경북지역단(단장 이희철)은 11월 26일 인터불고 경산cc그랜드볼룸에서 경북지역단 포교사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창단 1주년을 겸해 마련된 이날 전진대회에는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노휴 스님, 지도법사 도신 스님,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 윤기중 포교사단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희철 경북지역단장은 "윤리포교, 행복포교, 가치포교의 기치를 올리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포교사로 경북지역단의 전통과 위상을 높이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현재 법당의 엠프설비를 "UBS 내장형" 최신형,
최고급 「800W 파워드믹싱 앰프」 셋트로
160만원에 교체 설치, 보시 해 드립니다!
(기본제공 : 800W 앰프 + 450W 스피커2 + 900메가 무선마이크 1대, 사용중인 앰프설비는 회수함!)



• 대출력파워드 믹싱앰프
출력 : 800W USB 내장
가격 : 1,200,000원



• 대출력스피커 1조
최대입력 : 450W
가격 : 700,000원

법당 앰프설치비 가격표
기본) A형 : 93만원 (앰프, 스피커, 마이크2)
B형 : 127만원 (A형 + 무선 1셋)
C형 : 158만원 (B형 + CD 5개용)
D형 : 185만원 (C형 + 믹서 + 케스)
법당 표준형 : 225만원 (D형 + 무선 2인용 기타)
최고급형 일절 : 325만원 (믹싱800 + UBS, 일절)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가격 : 300,000원


• CD기기 (5개 연속사용)
[특별판매] 가격 : 350,000원


• 탁상마이크
가격 : 185,000원
자체 소리 조절
주지스님 전용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소장 김문화
무선설비기사, 음향연구가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

불전부·아함부·반야부
법화부·화엄부·정토부
붓다의 가르침
범본 한글 옮김 근본 육부 경전 정선

동산불교대학·동산불교대학원에서는 오는 1월 9일 (화) 부터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와 서강대학교 종교학과에서 불교 원전을 중심으로 불교사상을 강의했으며, 팔리어를 중심으로 하는 원전 번역과 학술적 연구에 매진하며 활발한 저술활동에 힘쓰고 있는 최봉수 교수를 모시고 〈범본 한글 옮김 근본 육부 경전 정선 "붓다의 가르침"〉을 교재로 하여 경전 강독 법회를 엽니다.

불전부·아함부·반야부·법화부·화엄부·정토부의 순서로 진행될 육부 경전 정선본은 병고 고익진 교수님께서 정선하시고 최봉수 교수님이 번역했습니다. 이 정선본의 강독은 매년 32강씩 6년에 걸쳐 이어질 계획이니, 많은 불자들이 "붓다의 가르침"을 따라 걸으며 부처님과 호흡을 함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개 강 2018년 1월 9일(화) 오후 7시
• 제 1강 – 오후 7시
• 제 2강 – 오후 8시 20분
장 소 동산불교회관 2층 교육관
강 의 최봉수 교수
내 용 1부 불전부 (부처님 생애편) 32강
• 2018년 1월, 2월 (16강) : 수행성불, 교화열반
2부 아함부 (2년차 – 32강) : 십이처 · 십업설법문 등 사대법문
3부 반야부 (3년차 – 32강) : 금강경, 팔천송 초품 · 강가데비품, 반야심경
4부 법화부 (4년차 – 32강) : 법화경 서품, 방편품, 비유품, 수기품
5부 화엄부 (5년차 – 32강) : 서분초지, 아함오지, 반야이지, 법화이지
6부 정토부 (6년차 – 32강) : 극락장엄경 소본일사, 광본삼사

DONGSAN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 · 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수송동 46-20, 동산불교회관)
T. 02)732-1206~8 F. 02)732-1207 http://www.dongsanbud.net